

특별기고



고병균
수필가

강진 전라병영성은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에 있다. 1992년 3월 9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40호 '전라병영 성지'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4월 18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397호로 승격되었으며, 2011년 7월 28일 '강진 전라병영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버스가 멈추어 섰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다. 나 보기에는 팽나무 같은데 다래나무라고 한다. 그리고 잘 정비된 성곽이 보일 뿐 성 안은 허허벌판이다. 성벽 옆에 있는 안내판이 눈에 띈다. 왼쪽 조각담에는 병영성의 모양과 성투의 이름, 앞으로 복원할 시설과 그 위치를 소개한다.

성곽이 끊어진 등문 옆에는 나무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높이

3.5m의 성곽 위로 올라갔다. 돌레가 1,060m라는 성곽을 따라 걷는다. 커다란 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는데, 입구에서 보았던 나무와 같은 수종이다.

성곽의 각 변 중간 위치에 성루가 있다. 동문, 서문 북문의 성루는 단층인데 남문 위에 있는 성루만 2층이다. 그래서 '진남루'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마장군 정성 하늘도 감동

병영성을 사적(史蹟)으로 지정할 당시 성곽의 일부만 남아 있었고, 육군 지휘부 시절의 건물이나 유적은 소실되어 없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93,139㎡ 되는 넓은 땅에 특별한 시설물은 없다. 불에 타지 아니하는 주춧돌도 하나 보이지 않는다. 남문 옆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와 10여 그루의 다래나무, 이런 것들을 병영성의 유적이나 유물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까?

병영성은 1417년, 조선 3대 태종 17년에 축조되었고, 1894년에 불탔으며 이듬해인 1895년에 폐영되었다고 한다.

병영성이 축조된 1417년은 고려왕조가 조선왕조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기다. 나라가 혼란하면 그 틈을 타 왜구가 출몰한다. 그것을 염려한 태종의 명령

강진 전라병영성

으로 군부대가 설치되었는데, 바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의 53주 6진을 총괄하는 육군의 총지휘부이다.

성곽을 맨 처음 축조했던 분은 마천목 장군이다. 그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무신 이요, 정치가였다. 장흥의 속현이었던 회령 출신이다.

'회령'이란 지명이 반갑다. 장흥군 회진면에 '회령진성'이 있고, 안양면에는 마씨의 집성촌도 있으며, 장흥군과 경계를 이루는 보성군 회전면에는 회령리도 있다. 어찌 반갑지 아니할까?

'전라도 병영'은 당초 광주에 있었다. 초대 절도사였던 마 장군은 '왜구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연안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진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성터를 물색하던 마 장군은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를 찾았다. 수인산(표고 561.2m)의 머리 부근이다. 동헌(東軒)이나 객사 등의 터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잠깐 쉬고 있을 때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활을 던져 보라고 한다. 마 장군은 활을 힘껏 던졌다가 놓았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새알 날아간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아무도 없다. 그 장면이 하도 생생하여 화살이 날아간 방향으로 찾아갔다. 놀랍게도 땅에

박혀 있는 화살이 있었다. 그곳이 현재의 병영초등학교 터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 '성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새 눈이 내렸다. 온 천지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신기하게도 눈이 전혀 쌓이지 않은 곳이 있다. 마 장군은 '옳거니, 신이 내게 성곽 돌레를 알려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성(城)을 쌓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설성(雪城)이라고도 한다.

병영성 역사 복원해야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 장군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세월이 흘러 6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병영성에서는 마천목 장군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 그것이 진남루 옆에 서 있는 소나무 가지 사이로 흐르며 휘파람 소리를 낸다. '성곽이 복원되었으니,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복원하라'고 노래한다.

그렇다. 478년 동안 이어온 병영성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된 선조들의 흔적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하여 국토를 지키는 것은 물론 더욱 아름답게 가꿀 산 증거로 삼아야 한다. 이게 후손인 우리가 할 일이다.

사설

광주 군공항 이전 할건가 말건가

광주·전남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실종됐다.

지난 3월 국방부의 이전예비후보지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이전 논의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군 공항 이전 연내 추진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는 광주·전남 상생의 시급한 현안이다. 서남권거점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 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 시급하고, 이와 연계해 군공항 이전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 상생위원회를 열고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합의 한 바 있다. 아울러 군공항 또한 전남이전 공영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무안 등 이전예비후보지 주민들의 격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국방부 주민설명회는 물론 시도의 이전 논의 자체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광

주시의 향후 개발 계획과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 보상안이 나오기 전에는 도가 직접 나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설명회 무산 이후 국방부·전남도와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가 제공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애만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사이 애꿎은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설득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도가 힘을 합쳐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연내 추진을 위해 삼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전남해안 방파제도 일본 기술이러니

전남 해안 방파제 시설물 상당수가 일본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공사 중인 일부 항만의 경우 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본 측에 수역원의 특허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주요 산업기술의 국산화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남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소파 블록 제작과 관련해 일본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항만공사 현황을 신안 거제도항, 완도항, 신안도항, 완도해경 부두 등이다. 이들 현장에서 설치하고 있는 대형파도 피해방지 시설은 방파제 외곽에 설치하는 시락(Sealock)과 항만, 물양장, 암석 등에 사용하는 와록(Warock Block)·이글로(Egloo Block) 등이

다. 목포해양만항이 발주한 거제도항과 청산도항은 시락(Sealock)이 설치되고 있으며, 청산항의 경우 8,000개 정도가 들어간다. 전남도에서 발주한 완도해경 부두는 이글로(Egloo Block)가 들어가며, 이미 준공된 목포해경 부두에도 와록(Warock Block)이 반영됐다. 문제는 이들 항만공사의 소파 블록 제작에 사용된 특허 모두가 일본 기술이라는 것이다. 거제도항은 특허료로 1억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청산도항은 5,7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들 양항은 아직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아 공사가 끝날 때까지 특허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우리 해안가를 보호하는 구조물들도 일본 특허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추정된다. 우리 기술개발이 시급한 이유다. 온전한 벽 등에 사용하는 와록(Warock Block)·이글로(Egloo Block) 등이

기고



신영용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광주는 요즘 장마 후 연일 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온통 축제 분위기다.

본 대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이들은 진행상 몇 가지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번 대회처럼 전반적으로 순조롭고 매끄럽게 치러지는 국제대회는 그리 흔치 않다고 이야기한다.

선수권대회가 끝난 뒤 지난 5일 개막된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에 장애인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 우리나라 참가선수 1,034명

1,034명 중 유일한 장애인선수 이동현을 응원한다

중 유일한 장애인 선수, 주인공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인 이동현씨(29)다. 자폐장애 1급인 이씨는 이번 대회에서 경영 25·29세 그룹 자유형 100m와 접영 50m, 접영 100m 등 3개 종목에 출전한다.

그동안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전문 수영 지도자인 문병남씨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해왔지만 수영을 오래 한 국내의 장애인들과 실력을 겨룬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함께 시합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장애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동현씨의 어머니인 정순희씨는 "광주에서 세계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현이에게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멋진 역사의 경험과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어 참가를 신청했다"며 "세계대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에게 용기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장애인들에게도 스포츠가 대중화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육구가 현재저 증가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발달 및 체력과 건강 면에서 뒤떨어진다 할 것이다. 아직 많은 사람에게 장애인이 체육을 한다는 것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의 저하 원인을 살펴본다면 그들의 생활환경, 경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건강증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체육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신체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즐겁게 활동하는 동안 장애인의 심리적, 형태적, 기능적인 발달증진을 도모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체육의 중요성을 논한다면 첫 번째가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고 다음으로는 체력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고 다음으로는 체력을 증진하고자 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체육의 첫 번째 중요성은 현재 처해있는 장애의 상태에서 더 이상 퇴화를 방지하고

다음 목표는 유지·증진이나 경기력 향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이란 삶의 의미가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의미는 운동 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초에서만은 그들의 천국인 것이다. 탁구, 마라톤과 수영 등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로 환호하는 장애인을 볼 수 있다. 광주시청 소속 탁구 김영건 선수도 부동의 세계 랭킹 1위 선수이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영역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스스로가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정신적 재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경쟁을 통한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온전히 영위하고 완성하는가는 그 사회의 선진수준을 재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 모두는 제2, 제3의 이동현을 기다릴 것이다.

살인적인 폭염 건강관리 유의해야

기저수첩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차례 태풍이 지나갔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온열환자 수는 지난 5월 20일부터 최근까지 113명(광주 22명·전남 9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는 857명에 이른다. 열탈진과 열사병 증상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론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장소는 논·밭과 주택 등 주로 야외활동 중 발생했다.

시간은 낮 12시-오후 3시, 오후 3시-6시 등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남의 가축 농가에선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0만 7,000마리를 비롯해 돼지 2,000마리가 폐사했다.

전국적으로 닭 58만 8,000마리, 오리 1만 8,000마리, 돼지 1만 3,000마리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열대야도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수그러지더라도 무더위는 다음달 초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지자체는 취약계층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활동,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좁은 방에서 생활하고,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폭염은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이웃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관리가 절실하다.



고광민
사회부 차장

폭염에 따른 식중독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온에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식중독 지수가 위험 경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수족관 물과 빗물 52건 중 5건에서 장염비브리오가 검출돼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앞으로 1주일 넘게 폭염이 계속된다고 예보했다.

다소 누그러지더라도 무더위는 다음달 초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지자체는 취약계층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활동,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좁은 방에서 생활하고,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폭염은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이웃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관리가 절실하다.

특지방장

불났을 땐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지난 6월 발생한 서울 은평초등학교 화재현장에서는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내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교사들이 116명의 학생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 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가능한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졌으며,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 보다 연기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다수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특별대책 역점사업으로 '불 나면 대피먼저' 홍보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SNS홍보활동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말고 '불 나면 대피먼저' 6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먼저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냐 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신고하기 ▲다섯째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등 6가지 안전수칙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화재발생 시 대피를 우선시키는 사회적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화재 때 시민들이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집, 학교, 회사 등 생활단위 공간까지 화재대피 계획 수립과 실제 연습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화재 연기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 닫고 대피하는 행동요령을 집중 훈련하도록 한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 평소 '불 나면 대피먼저' 6가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 등 위험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킴으로써 화재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화재발생 시 대피를 우선시키는 사회적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화재 때 시민들이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집, 학교, 회사 등 생활단위 공간까지 화재대피 계획 수립과 실제 연습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화재 연기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 닫고 대피하는 행동요령을 집중 훈련하도록 한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 평소 '불 나면 대피먼저' 6가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 등 위험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킴으로써 화재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희철 대표이사·발행인	편집인 김용만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경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기획실 (062) 720-1005
경제부 (062) 720-1066-67	기획실 (062) 720-1005	논설실 (062) 720-1032
사회부 (062) 720-1050-54	월간국 (062) 720-1006-07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45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98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사업국 (062) 720-1011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광고국 (062) 720-1016-17
사전부 (062) 720-1040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